



대일외국어고등학교 한춘식 교사

이달에 만나볼 아마추어 천문인은 대일외국어고등학교에서 과학 교육을 맡고 있는 한춘식 씨다. 그를 만나기 위해 찾은 교정에는 점심 식사를 마치고 분주히 교실로 향하는 학생들로 시끌벅적하다.

“이렇게 어려운 일을 시키고 그래요. 다른 사람도 많을 텐데.”

인터뷰가 처음이라는 한춘식 씨. 들이대는 녹음기와 카메라가 부담스러워지 멧쩍게 웃는다.

“대학 시절 선택한 과는 천문기상학과였습니다. 천문하고 기상을 같이 배우다 3학년 때 천문을 할지, 기상을 할지 선택하게 되죠. 저는 기상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1, 2학년 때는 천문도 배우고 관심도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천문 동아리를 만들게 되었죠. 천문기상학과지만 기상 동아리는 만들기도 힘들고, 들어본 적도 없잖아요.”

한춘식 씨가 대학 생활을 하던 70년대 말부터 대학에 천문 동아리가 하나 둘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별이라는 건 대학 들어가서 알았습니다. 고등학교 때 배우기는 했지만 관심이 없었죠. 대학 1학년 때 학교 천문대에서 실습하면서 처음으로 달을 보고부터 아마추어 천문 활동이라는 걸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천문에 관심도 있었고, 동아리 활동도 하던 그가 기상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했다.

천문이 아닌 기상 전공자

“이런 애길 해도 될지 모르겠네요. 2학년 때인가요. 그때는 일반기상학과 일반천문학을 같이 들어야 했어요. 그런데 쑥스럽게도 기상학은 F를 받고, 천문학은 D를 받았어요. 이때만 해도 천문학을 선택할 마음도 있었고, 그래서 2학년 마치고 군대 갈 때는 천문학을 공부하려고 책도 갖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제대하고 나서는 기상을 선택했어요. 지금 생각해도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학 얘기를 하자면 할 얘기가 굉장히 많다는 한춘식 씨의 이야기가 이어진다.

“대학교 3학년 2학기 때부터 공해라는 것에 관심이 생기더군요. 우연히 도서관에서 병든 지구인가 하는 제목의 책을 보게 된 게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환경 문제를 다루고 있는 책이었는데, 인간의 삶에 대한 얘기가 많이 담겨져 있더군요. 이후 환경관리기사 자격증도 따고, 계속 환경 관련 일을 하려고 했었죠. 졸업하고 나서는 환경연구소에 임시직으로 일을 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일을 시작하고 6개월쯤 되었을 때 대학 선배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교사할 생각 없냐고요. 그 당시 근무 여건이 임시직 연구원보다 교사가 훨씬 좋았습니다. 고민이 되더군요. 결국 교사 생활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이르렀죠.”

환경 연구원에서 교사로

교사의 꿈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다. 환경 관련 일을 하고자 했던 게 첫 번째였다면, 그 다음 순위가 교사였다고 한다. 기상을 전공했으니 날씨가 어떨 것 같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지 않느냐고 물었다.

“제가 전공이 기상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지구과학을 가르치고 오랫동안 별과 관련된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 천문학을 전공한 줄 알아요. 가르치는 것도 천문학이 재밌어요. 애깃거리도 많고요. 그래서 학생들도 천문학 전공인 줄 압니다.”

학교에는 한춘식 씨가 만든 천문 동아리도 있다. 그런데 예전만큼 활동이 활발하지 못하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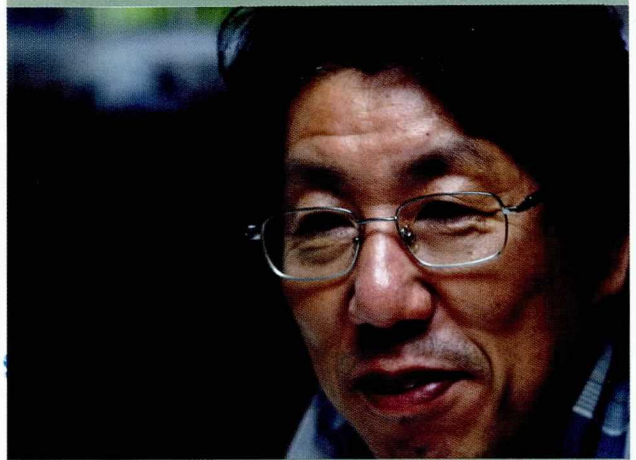
“옛날에는 학생들끼리 관측을 자주 가곤 했는데, 요즘 학생들은 밖으로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남녀공학이다 보니 밤샘 관측을 하려면 지도 교사가 따라가야 하는데, 저도 나이를 먹어서인지 예전처럼 열의를 갖고 학생들과 함께 하질 못해요. 그 점이 늘 미안합니다. 그래서 젊은 선생님께서 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 별에 관심 있는 적임자를 찾질 못했습니다.”

현재 사단법인 한국아마추어천문학회 감사직을 맡고 있는 한춘식 씨가 학회와 인연을 맺게 된 건 1990년대 초.

“정확히 몇 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박석재 원장님이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막 귀국했을 때였어요. 그 당시에는 지구과학 교사들의 천문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교사들을 대상으로 서울대에서 강의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관심을 갖고 있던 차에 찾아가서 들었죠. 정말 감명 깊었습니다. 지금도 강의 내용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데, 학생들 교육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시다.”

학회 일을 하면서 공개 관측회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해 오고 있지만, 최근 들어 대중들의 참여도는 과거만 못하다고 한다.

“처음 공개 관측회를 할 때만 해도 몇 만 명이 왔습니다. 행사장이었던 주변의 교통이 마비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요즘은 볼 것도, 놀 것도 풍부해졌고, 보는 눈들이 높아져서 웬만큼 해



서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어렵습니다. 그 만큼 과거보다 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옛날 젊었을 때처럼 마음만 있다고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열의와 함께 필요한 게 예산입니다. 그런데 현 학회 예산은 회비가 전부죠.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익사업의 필요성을 느끼는데, 이도 쉬운 일이 아니네요. 앞으로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한국아마추어천문학회와의 인연

예전만큼 별 볼 기회를 많이 갖지 못한다는 한춘식 씨는 요즘 산을 많이 찾는다고 한다. 별 취미에 앞서 있던 취미가 바로 등산이었다.

“별을 알게 되기 전까지는 산을 다녔습니다. 오래되었죠. 주로 혼자 다니다가 지금 근무하는 학교에 산악회를 만들었습니다. 한 달에 두 번은 선생님들과 함께 합니다. 얼마 전에는 등산학교를 수료하기도 했습니다. 암벽등반도 배우고 했는데,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암벽 타는 건 무섭더군요. 등산학교를 다니고 나서 달라진 건 큰 산이나 겨울산도 혼자 다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혼자 다니긴 했지만 겨울 산은 엄두를 못 냈거든요. 추운 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배운 덕분이지요. 다른 사람에게 뒤지지 않을 만큼 산을 좋아하지만 제 등산복 차림을 보고서는 의아해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완전히 구닥다리거든요. 사실 하루 코스로 작은 산에 오르는데 비싼 등산복이나 등산화는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간편한 복장에 운동화로도 충분합니다.”

산에 가면 뭐가 좋으냐는 질문에 별을 왜 좋아하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만큼 대답하기 어렵다는 한춘식 씨. 별도 산도 그저 좋을 뿐이라고 한다. 미래의 꿈이라면 별 좋아하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표인 개인 천문대를 갖는 것. 그러나 꼭 천문대가 없어도 좋단다. 별을 사랑하는 지인들이 전국 곳곳에 있어 언제라도 찾아가 별과 인생을 얘기할 수 있으니….